

## 아르떼 포베라(Arte Povera)가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엄 소 희

국립 원주대학 의상과 교수

### A Study on the Formativeness of Modern Fashion through Arte Povera

So-Hee Um

Professor, Dept. of Clothing Design, Wonju National College

(2002. 3. 28 접수 : 2002. 5. 11 채택)

#### Abstract

This study was established to understand how Arte Povera has affected the contemporary fashion based on the analyses of its characteristics and may provide a prospective view to predict style of future fash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poverty" shows such characteristics as patch work, intentional mismatch, and tendency to prefer slightly used style. This meaning can be explained as direct expression from a sense of alienation, against to consumer economy, and dual-expression between poverty and wealth. 2) "Anti-formativeness" can be described for misinterpretations of creation, arrangement, and informal silhouette due to distortion of the human body. This expression includes such meanings as against to traditionalism, ignorance of rationality, and disorganization of the concepts between the beauty and the ugly. 3) "Naturalism" indicates as characteristics of use of natural materials and primitive expression. This expression could be generated from adaptation to the nature and desire toward uncivilized society due to skepticism about modern society. 4) "Symbolism" shows such expressions as an isolated feeling from society, and metaphoric sense from specific situations because there are too many applications of imported materials. This tendency can be also explained with the creations of spaces for opened concepts through disorganizations of territory, obscurity, and irregularity.

*Key words* : anti-form(반 형태), Arte Povera(포베라 아트), poor, poverty(빈곤), worthless materials(하찮은 재료).

#### I. 서론

아르떼 포베라(Arte Povera)는 1960년대 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운동으로 물질 만능주의적인 문화 현상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 예술운동 중의 하나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이탈리아

는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 산업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르떼 포베라는 거부 당하고 버려진 재료에 대한 새로운 미적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면서 부의 환영에 대한 반동으로써 나타났다. 이것은 예술작품을 통하여 기존의 의미나 표현방식을 거부하고 당시 사회일반의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따라 기존권위와 위계질서를 타파하려는

\* 2001 춘계학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전위운동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미술사조들이 현대패션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활발했던 반면 국제적인 예술로서 이탈리아의 전위 현대미술인 아르테 포베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아르테 포베라의 특성 및 여러 예술양식들과의 종·횡적 관련성을 분석하고 아르테 포베라가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재료, 형태 및 의미, 상징성 등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첫째 아르테 포베라의 기법에 의한 현대패션의 표현성을 고찰하고, 둘째 아르테 포베라의 기법에 의한 현대 패션의 특징을 이미지의 표현적 방법으로 분류한 후 현대패션의 표현매체 및 내적, 외적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로서 예술전문지, 논문 등의 문헌적 고찰에 의하며, 패션분석은 2000년대 이후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사진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널리 구독되고 있는 「Gap Press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News」, 「PRÊT-À-PORTER」 등의 컬렉션 전문서적과 패션 전문서적에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날로 난해해지는 현대복식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래복식의 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II.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의 개념에 대한 고찰

### 1.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의 발생 배경 및 동시대적 경향과의 상호 관련성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라는 용어는 1967년 9월 이탈리아의 제네바에서 열린 아르테 포베라 에

임 스파지오(Arte Povera e IM Spazio)라는 전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것은 제르마노 첼란트(Germano Celant)가 기획한 것으로, 첼란트는 이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이탈리아 작가들 즉, 보에티(Alberto Boetti), 파스칼리(Pino Pascali), 파브로(Luciano Fabro), 프리니(Emilio Prini), 쿠넬리스(Jannis Kounellis), 파올리니(Guilio Paolini) 등의 작품성격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라는 명칭을 부여했다.<sup>1)</sup> 그 명칭은 후에 '아르 보브르'(Art Pauvre:불), 혹은 '푸어 아트'(Poor Art : 영)로도 불리우며 작가들 또한 이탈리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sup>2)</sup>

반예술운동으로 출발한 다다(Dada)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미국의 네오 다다이즘(Neo-dadaism)이나 프랑스의 누보 리얼리즘(Nouveau Realisme)과 연관성을 지닌 아방가르드 운동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맥락에 있어서 관심미적이며 반체제적인 특성<sup>3)</sup>을 지니고 있다.

아르테 포베라 유파의 작가들은 모두가 빈곤함을 절대적인 가치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첼란트가 명명한 아르테 포베라 그룹의 'Povera'의 어원은 제르지 그로토티스키(Jerzy Grotowski)의 회곡에서 차용된 용어인데, 그 의미는 '빈곤함', '보잘 것 없는'이라는 형용사로서, 현실묘사, 재현 혹은 언어적인 습관과 유사한 모든 것을 배제하자는 의도아래 빈곤의 예술이라고 불리우는<sup>4)</sup> 새로운 예술에 접근하였다. 아르테 포베라는 불품없으며 빈곤한 느낌의 재료가 성장하고 해체되며 조해하는(늘어서 쓸모없게 되는) 과정을 통해 덧없음을 암시해주고 불안정한 자연의 본질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다. 아르테 포베라의 작가 중 한사람인 제니스 쿤넬리스(Jannis Kounellis)도 이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집약적인 말로 "예술가에 의해 표현되는 이미지들은 삶의 그 어떤 형태와도 다를게 없다"<sup>5)</sup>라고 주장하면서 예술과 현실의 삶과 결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다. "살아있는 상태는

1) 김미경, "아르테포베라의 개념과 조형적 특징", 《현대미술논집》 제1집, 이화현대미술연구회(1991) pp.95-97.

2) Jean-Luc Daval, *Sculpture, "The Affirmation of Sculpture, Aere Povera"*, trans., by Michael Heron, (New York: Rizzoli, 1986), p. 278.

3) 이일, "이탈리아의 同一性'展, 「공간」, (1982. 1), p. 36.

4) D. Semin, *L'arte povera*(Paris : Centre Georges Pompidou, 1992), p. 10.

5) G. Briganti, *Cultural Provocation: Italian Art of the Early Sixties. In Italian Art in the 20th Century*, ed. by E. Braun(Munich : Prestel, 1989), p. 305.

아르테 포베라의 재료와 의미가 함축하는 바를 잘 알려주는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유기적 물질이 그렇듯이 살아있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로 이어지고 다시 생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순환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sup>6)</sup> 즉, 켈렌트가 의도하였던 아르테 포베라는 재료와 의미 둘 다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아르테 포베라의 작가들은 회화에 있어서의 추상 예술 개념을 타파하고 예술의 상품화를 거부하며 예술과 사회적 계급 사이의 관계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예술 자체를 위한 예술로서 자율성을 극대화 시켜가는 한 방향과 다른 한 방향으로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궁극적으로는 삶을 예술화하려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아르테 포베라에서의 창조는 작품수집이 불가능한 일시적인 성격을 추구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체계를 거부하고, 이미 제도화되어 버린 추상미술에 반발하는 반면 아르테 포베라의 작품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기하학적 추상형태도 차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든 아방가르드가 그러하듯 모든 기성권위(추상미술 포함하여)를 거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통에 한가닥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오브제(object)를 예술적 문맥으로 도입시켰다는 점에서 다다, 누보리얼리즘, 팝아트 등의 여러 경향들과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의 상호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다. 누보리얼리즘, 팝아트, 아르테 포베라 모두 일상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다다의 영향<sup>7)</sup>을 알 수 있는데 다다는 레디메이드를 통해 작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예술작품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아르테 포베라는 누보리얼리즘이나 팝아트가 사용하였던 획일적인 제품이나 기성품, 폐품과는 다른 불품없고 빈곤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작품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형성의 기준을 거부하고 또 전례적인 작품형태를 거부하며 사회, 정치, 경제 등 그 당시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현실문제를 다루는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하였다. 다다, 누보리얼리즘, 팝아트의 오브제는 대중성 복제성

이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 아르테 포베라의 오브제는 설치와 행위에 따른 일시성, 일회적인 순간성이라는 특성을 각각 갖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예술의 유일성과 영구성을 강조했던 전통예술에 대한 불신 및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 물체의 본질을 구체화시키는 오브제 미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상호 소외의식에서 해방시켰으며 소재의 확대를 가져오게 했다.

또한 1960년대 말에 형성된 미니멀 아트는 아르테 포베라와 거의 동시대적으로 발생하고 전개되었던 미술경향으로서 상호침투적인 성격이 있다.<sup>8)</sup> 미니멀 아트와 아르테 포베라는 예술에 대한 의도나 표현방법, 표현재료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두 미술운동이 완전히 대립적이지만은 않다. 그러한 요소는 우선 미니멀 아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르테 포베라에서도 일루전의 극소화를 추구하고 작가의 주관적인 자기표현은 곧 예술이라는 정신을 기본으로 한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며 그 대신 사물의 존재를 직접 제시하려는 예술의 사물화를 강조했다는 점, 작품에 있어 형태와 배경의 이원성을 배제하고 감상자를 작품에 편입시키는 공간확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작품 위주의 객관적 미술 개념이 아닌 인간의 지각적 행위에 중심을 둔 체험적 미술개념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아르테 포베라가 미니멀 아트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테 포베라를 안티 미니멀(Anti-Minimal)<sup>9)</sup>이라고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미니멀 아트가 하나의 미술사조로서는 형식주의에 위치하는 반면 아르테 포베라는 기술과 진보에 대해 부정적이며 현행의 미술사와 미학적 카테고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반 형식주의에 속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볼 때 아르테 포베라는 작가의 아이디어와 의도를 중요시하였고 작품제작에 있어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6) 김미경, 앞의 글, p. 100.

7) 최혜원, 앞의 글, "Arte Povera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 22~23.

8) 최혜원, 앞의 글, p. 19.

9) 김미경, 앞의 글, p. 107.

〈표 1〉 동시대적 경향과의 상호 관련성

구 분	다 다	누보리얼리즘·팝아트	미니멀 아트
공 통 점	경신적 상황과 기상이미지에 대한 관념. 작품소재로 일상적인 오브제 이용.	기계문명의 대량생산으로 인한 소비사회 배경. 일상적 제품이나 폐품 이용.	미술의 세속화와 상품화에 저항. 기법상 수집하기가 불가능하도록 작품제작.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도를 중시하는 비물질화 경향. 예술의 사물화, 공간의 확장화. 현상학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
	예술형식 및 기존체제의 거부, 반형식주의 미학,		
차 이 점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레디메이드를 오브제로 표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삶의 풍요로움 표현. 대중성, 복제성.	예술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최소 단위로 환 원하여 작품 속에서 내용을 배제.
아르페 포베라	빈곤하고 보잘 것 없는 재료 특히, 자연대상물을 주로 사용	빈곤함, 보잘 것 없음을 절대적 가치로서 표현. 일시성, 일회적인 순간성	작품 속에 상징적 의미와 은유적 내용 함 축. 반형식주의.

2. 아르페 포베라(Arte Povera)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

아르페 포베라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각각 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또는 은유적 내용으로 표현하였다.

아르페 포베라의 초기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쿠넬리스(J. Kounellis)는 1967년 그의 개인전에서 재료들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최대한으로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J. Kounellis, 「무제」, 1967.

그는 석탄을 사용하여 꽃모양의 불을 만들어서 불과 석탄이 결합되는 형태를 보여주거나(그림 1), 가스(gas)를 마루에 설치하여 불길에 여기 저기서 솟아 오르게 하는 작품 등을 통해 물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랑에 말을 매어 놓기도 하고 살아 있는 앵무새를 직접적인 표현재료로 사용<sup>10)</sup>하는 등 살아있는 요소를 선택하여 작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삼베자루를 깨매어 벽부터 바닥까지 걸어놓은 작품 등 곡물, 숨, 양모, 석탄, 장철판, 루프, 코트 등 기본 생활용품들이 그의 작품들에서 반복되어 보여진다. 해머커(A. M. Hammacher)는 이러한 쿠넬리스의 작품성격에 대해 '특별한 기교나 스타일 없이 연극적 장면으로써 20세기의 혼란되고 붕괴, 팽창된 문화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이미지의 시인'<sup>11)</sup>이라고 하였다. 즉 쿠넬리스는 결과로서의 작품보다는 문화적 변화과정과 불건전 상태, 그리고 문화의 발생기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줄에 매어 발길질하는 호색적인 말의 존재를 통해 현대인의 속박상태와 그에 비유적인 원초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불은 인류문명이나 변화의 상징으로서, 연기의 그을음이나 솟에 그을린 표면은 찬란했던 과거 문명의 흔적 또는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견해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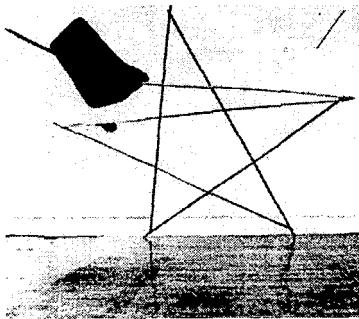
10) Germano Celant, "Jannis Kounellis", *Studio International*, No. 971 (1976), p. 191.

11) A. M. Hammacher, *Modern sculpture* (Harry & Abrams, 1988), p. 392.

석된다. 이외에 석탄은 산업화의 상징, 타버린 목재, 허물어진 벽도 삶의 무상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쿠넬리스는 생물과 무생물, 자연물과 인공물,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등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의 물성을 무형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문명과 자연에 대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리오(G. Zorio)는 개인으로서 경험하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득 차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었는데 주로 전통적인 재료들인 테라코타 또는 가죽과 쇠투창, 구리로 만든 부품들을 혼합시켰다. 1969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연작 중의 하나인 <그림 2>의 별의 형태는 강철과 알루미늄 봉으로 만들어졌는데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별은 우주의 비 물질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투창은 인간의 물리적인 에너지를, 카누는 하늘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별은 과학적, 종교적, 정치적인 모든 종류의 의미를 흡수하고 있는 대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는 하찮은 재료와 자연적 소재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과의 조화를 상징하고자 한 것이다.

파브로(L. Fabro)는 1967년부터 아르테 포베라에 가담하여 대리석, 신문, 색칠한 철, 납, 직물 등의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통하여 경직되기 쉬운 스타일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다양한 형태들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파브로의 연작 중 하나인 「황금의 이탈리아(Golden Italy)」(그림 3)는 1971년에 완성된 작품으로서 이탈리아 지도의 형상을 한 부츠 실루엣을 거꾸로 매달은 형태이다. 금으로 도금한 브론즈를 표현재료로 이용하여 이탈리아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



<그림 2> G. Zorio, 「바다에 떠 있는 별」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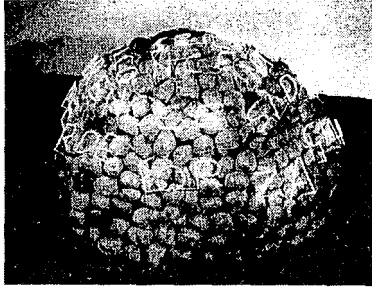


<그림 3> L. Fabro, 「Golden Italy」, 1971.

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고 형태와 물질성을 넘어서 이탈리아의 가치전도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화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과 자연의 귀중함을 잊고 사는 현대인에 대한 경고의 의도와 전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68~1971년에 제작된 「발(feet)」 연작들은 원시사회를 암시하는 형태에 호화롭고 사치로운 재료들인 금, 얇은 대리석, 천연실크, 크리스탈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질 숭배적인 의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과거와 현대의 상황을 대비시켜 표현한 것이다.

메르쯔(M. Merz)는 1960년대 후반부터 물질을 직접 제시하는 작업을 전개하면서 아르테 포베라에 참여하게 되는데 표현재료로서는 점토 유리, 네온, 나뭇가지, 접착제, 철사 등을 사용한다. 현실상황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상들을 통하여 자신만의 상징체계를 이루어내고 있는 메르쯔는 인간에 의해 발견되어진 수학적공식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작품에 도입하여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메르쯔는 네온이나 이글루(igloo)의 형태를 많은 작품에서 인용하는데(그림 4) 네온은 현대 과학 기술문명의 상징으로서, 원시적 주거지 형태의 이글루와 비유하여 원시와 현대를 연결하는 관념적인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페노네(G. Penone)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장하는 작가이다. 그의 연작인 나무(그림 5)는 자연의



<그림 4> M. Merz, 「Igloo de Giap」, 1968.



<그림 5> G. Penone, 「감자」, 1974~78.

장과정에 대한 그의 관심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용의 지나간 흔적을 남겨두기 위해서 물질들의 어 특성을 각각 이용하였다. 굳게 뻗은 줄기의 형태 나무의 갈라진 부분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내는 나뭇결이나 나이테 등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1977년 제작된 「감자」 연작이나, 1978년 테라코타로 제작된 「입김」들은

생명이 있는 물체를 통해서 기계적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과 원초적인 생명체에 대한 경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가를 중심으로 주제 및 상징, 표현매체, 표현형식, 기법 및 조형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이와 같이 아르테 포베라는 첫째, 전통적인 표현 소재로서 가치가 없던 것으로 여겨져왔던, 그리고

<표 2>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기법 및 조형성

특징 가	주제 및 상징	표현매체	표현형식	기법 및 조형성
Kounellis	인간의 역사, 삶의 문제를 비판적인 절망의 태도로 표현. 이원론적 세계관 상징	꼭두, 솜, 양모, 석탄, 강철판, 천, 옷 등	다색의 앵무새(회화, 은유), 불꽃(인류문명, 변화의 상징), 그을린 흔적(과거 문명의 흔적, 소멸)	·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의 물성 강조 · 무형식적 반형태 · 상징적 의미의 표현
G. Zorio	우주의 비물질적인 에너지와 인간의 물질적인 에너지의 조화.	테라코타, 흙, 가죽, 쇠투창, 구리, 나무, 강철, 알루미늄 등	별, 투창, canoe (시·공간외 초월)	·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의 물성 강조 · 자연적 소재의 적용 · 상징적 의미의 표현
L. Fabro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소비경제사회에 대한 회의	대리석, 신문, 유리, 납, 직물, 철, 털, 금, 브론즈 등	Boots silhouette(자본주의의 비판), 발 silhouette, crystal silk(물신숭배 의미)	·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의 물성 강조 · 무형식적 반형태 · 상징적 의미의 표현
M. Merz	정치, 사회에 대한 이슈 표현. 자연과 인공의 조화, 현대와 원시의 연결.	금속, 점토, 유리, 네온, 신문, 채소, 나뭇가지, 철사 등	자연물, igloo (은신처, 소외된 계층 의미), 네온(현대 과학문명의 상징)	· 자연성의 추구 · 무형식적 반형태 · 원시적 표현 · 상징적 의미의 표현
i. Penone	자연과 인간의 관계.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과 원초적인 생명체에 대한 경의	흙, 나무, 감자, 브론즈 등	나무결, 나이테(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나무줄기, 감자(물질주의 생명체는 은유)	·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의 물성 강조 · 자연적 소재의 적용 · 원시적 표현

산업사회 부산물로서의 폐품이나 기성품과는 다른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들을 선택하여 재료의 물질성을 강조하는 비표현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 재료의 가변적인 성격과 작업을 하는 과정 및 행위에서 비롯되는 과정을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서 다루어 시간 경과에 따른 무형식적 반형태의 특성을 갖는다. 셋째, 기존의 형식주의적인 미학적 근거에 비판을 가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재료들, 특히 자연 대상을 주로 사용한다. 넷째,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이미지나 일루전을 거부하고 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인간의 소외현상, 극도의 개인주의, 인종문제, 사회 계층문제,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 비판이나 고발하는 성격의 은유적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림 6〉 하찮은 이미지, J. Galliano, 2001 S/S  
(Fashion News. Vol. 66, p.86).

### Ⅲ. 아르페 포베라(Arte Povera)가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징

#### 1. 아르페 포베라의 기법에 의한 현대패션의 조형성

##### 1)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 자체의 물성 강조

아르페 포베라는 하찮고 볼품 없으며 빈곤한 느낌의 재료들, 예를 들면 흙이나 신문지, 석탄이나 나무토막, 나뭇가지, 그리고 평범한 식물들이 누더기처럼 등장했다. 다시 말해 아르페 포베라의 재료는 주로 성장하고 해체되며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서 덧없음을 암시해주는 것들로 표현함으로써 산업화를 반영하는 매끈함 대신 불안정한 물질세계의 본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르페 포베라적 성격의 작품은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존 갈리아노는 2001년 춘하 컬렉션에서 신문지와 비닐, 천 조각들을 사용하여 아방가르드적 패션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날짜가 지나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신문과 산업화의 생산물인 비닐, 그리고 하찮은 천 조각 등 더 이상 볼품 없으며 덧없음을 암시해주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산업화에 대한 조롱과 더불어 포베라적 이미지를 재현하였다(그림 6).

또한 아르페 포베라의 특성은 1980년대 이후 보여지는 푸어 룩의 패션에서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 1990년대의 세계적인 불황은 복식에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느끼고 화려함을 피하는 경향이 물리적 파괴, 빈곤 황폐적 해체를 제시함으로써 하찮으며 빈곤한 느낌의 패션 즉, 푸어 룩, 또는 중고주의 패션이 새로운 예술성으로 표출되었다. 인위적으로 파열된 면직물, 저명도 저채도의 물 빠진듯한 낡은 소재에 패치 워이나 의도적인 미스매치 같은 빈곤하고 하찮은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지적, 예술적 보헤미안들의 산업화에 대한 반항의 이미지로 시작되었고 1960년대 이후 역시 히피와 펑크의 저항적 의미를 은유하는 중고 스타일을 통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이후 아방가르드들의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의 주체<sup>12)</sup>로 사용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원단을 꾸깃꾸깃하게 만들거나 헤진 원단을 이용해 불규칙적으로 레이어드 시켜 초라해 보이도록 디자인된 낡은 이미지는 과시적 위반으로서의 포베라적 표현이며(그림 7), 찢어진 긴즈는 더 이상 하위문화 패션으로서가 아니라 패션매체에 의해 유행하기 시작한 절충주의의 한 형태로 보여진다

12) 엄소희, 김문숙, *현대복식의 패러다임*, (서울:경춘사, 2000), p. 196.



〈그림 7〉 빈곤의 이미지, S, Kuwahara, 2001 S/S  
(Fashion News. Vol. 67, p.49).



〈그림 8〉 빈곤의 이미지, J. Richmond, 01,02 F/W  
(Gap Collection. Vol. 35, p.103).

(그림 8). 이 누더기 옷은 빈과 부라는 이중적 지층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며 사회적 불균형, 인간

의 소외라는 표현과 실제 사이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전파는 소비자들의 패션을 추종하려는 동조성과 동시에 개성을 추구하려는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경향을 이용한 상품시장이 거리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상품화하거나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존 갈리아노(J. Galliano), 이세이 미야케(I. Miyake), 존 리치몬드(John Richmond), 레이 가와쿠보(R. Kawakubo), 타수노(K. Tatsuno), 수나노 쿠와하라(S. Kuwahara)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뽀빠라적 이미지의 표현은 소비주의의 양 가지망을 표현한 것이며, 전통적인 복식이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무시인 동시에 거부의 표현인 것이다. '90년대 이후 컬렉션에서 보여진 뽀빠라 룩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며 이러한 소재의 물리적 파괴 및 해체라는 주제는 계속적으로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무 형식적 반 형태(anti-form)

장뤽 다발(Jean-Luc Daval)에 의하면, 아르떼 뽀빠라의 작품은 더 이상 정형화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라는 원초적 리얼리티를 재발견하기 위한 즉각적, 실제적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sup>13)</sup> 즉 아르떼 뽀빠라 작품 안에서의 재료의 본질은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발전의 논리이며 그것은 실제적인 표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물질세계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의 작위성을 배제하고 재료들은 고정되어 없이 일시적이거나 가변적 특성을 갖도록 하는 아르떼 포베라의 특성은 무형식적 반형태의 패션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추상예술의 정형적이며 완결된 형태 대신 유동적이며 비정형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개념적 형식주의를 부정하고 안티 패션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기능성, 중심성 등을 모두 거부하고 착용자의 착장 방식에 의해 의복이 완결되는 미완성의 불확실성 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과정-재료의 가변적 특성, 작업, 행위에서 비롯되는 과정을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서 다루고 있다.

무 형식적 반 형태(anti-form)의 복식체계는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치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공

13) Jean-Luc Daval, 앞의 글, p. 278.





〈그림 9〉 무 형식적 반 형태, Issey Miyake, 1983.  
(PRÊT-À-PORTER, 2001:51).



〈그림 10〉 J. Galliano (2001s/s)의 작품.  
(PRÊT-À-PORTER, 2001:60).

간 구성에 의한 불확정적인 형태구성을 보인다. 모든 체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 데리다에 의한 불확정성의 원리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재봉을 하지 않는 상 쿠티르 스타일, 형이 없는 상 포름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세이 미야케(I. Miyake)의 작품에서 더욱 극도로 표현된다. ‘형태가 없는 형태, 형식이 없는 형식’이라는 미야케의 디자인 공식이, 마치 평면의 천조각을 늘어뜨린 듯 몸 전체에 이어져 일정한 틀을 없애고 무질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9). 이것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우연성과 혼합, 중첩에 의한 무질서를 예시하며 기능성, 중심성 등을 모두 거부하고 착용자의 착장 방식에 의해 의복이 완결되는 미완성의 불확실성 원리를 제시한다.

존 갈리아노(J. Galliano)의 2001 S/S작품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형태와 의미를 갖고 있는 의복 요소들이 각각의 고정된 의미를 배제한 채 무의미하게 나열되어 있다. 형태가 해체된 스웨터, 난해한 드레스 등 각각의 요소들은 그 의미를 상실한 채 매우 다양한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들이 연상시키는 형태들은 폴리 각각이 가진 의미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그림 10), 형태와 내용 사이에 아무런

연상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복이 하나의 완성된 단위가 아니라 인체와 더불어 열려진 공간과의 조형미를 완벽하게 창출시킨 것으로 복식 형태가 고정된 의미체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고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이세이 미야케, 키미지마(Kimijima), 투수무라(K. Tsumura), 존 갈리아노(J. Galliano), 히시누마(Y. Hishinuma) 등이 있다.

인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순수의 미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는 기존의 이성적 사고가 확립시켜온 복식의 형태, 즉 목둘레선, 손목, 발목, 소매, 길 등의 구분을 전혀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복식구성의 불확정성, 무질서, 들 형식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자연성의 추구

아르떼 포베라(Arte Povera)가 국제적으로 파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현대사회의 상황에 따른 인간의 소외현상이나 인종문제, 극도의 개인주의 등을 고발하고 근원으로의 회귀를 기초로 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패션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에 대한 동경은 주로 자

연물을 의복으로 형상화시키거나 자연물 그대로를 장식하는 자연성 복식과 노출지향의 누드, 바디 페인팅류의 tattoo를 이용한 원시성 복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순환하는 에너지, 호흡, 압력과 같은 원초적인 것을 야기시킨다.

자연성을 표현한 의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에콜로지 경향과 함께 패션테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토속성을 표현한 에코 룩은 흙, 나뭇잎, 덩쿨, 식물 줄기 등을 묘사하되 갈색 계열의 유사조화로 자연적 분위기를 표현하였으며 소재는 천연소재나 실, 거칠고 투박한 천, 망, 토속적 재질 등을 사용하여 원시적 느낌을 주었다(그림 11). 또한 <그림 12>는 조개, 깃털, 풀 등의 실제 자연물들을 의복에 직접적으로 이식하여 형태화하거나 장식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의복이 하나됨을 느끼도록 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회귀하고픈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물을 의복으로 형태화시키는 사실적 표현방식으로 의복 자체가 평화로운 자연을 나타내 주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이브생 로랑(Y.S. Laurent), 펜디(Fendi), 겐조(Kenzo), 콤플리시(Complice), 리즈 콜린스(Liz Collins), 토스보 러 볼(Tokubol Vol)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1> 자연적 소재의 사용, Liz Collins, 2001 S/S (Fashion News. Vol. 66,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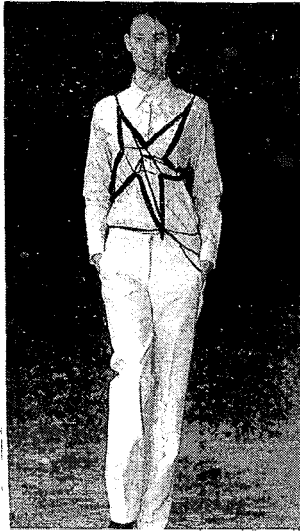
<그림 12> 자연성의 추구, Tokubol Vol (Collezioni No. 38, p. 275).

이와 같이 20세기에 들어 사회가 산업화,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병폐가 커짐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써의 자연성을 추구는 발전된 과학과 기술로 황폐화되는 인간성과 불확정적 미래에 대한 상실이 자연과 비문명 세계에 대한 향수로써 복식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의 표현

아르테 포베라는 당시 인간의 소외현상이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비판적 견해나 고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추상적 이미지나 일루전을 거부하고 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특히 아르테 포베라는 산업화를 반영하거나 상징하는 부산물로서 획일적인 공장 제품이나 산업폐기물이 아닌 자연대상물을 주로 선택함으로써 대량소비 사회 속에서 현대 과학의 리얼리티가 환상적으로 재현됨과 동시에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복식에서는 하얗은 재료들, 즉 스테인레스 스틸, 코팅 강철, 알루미늄판 등을 이용해 과학기술의 발달과 우주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외형적 실루엣의 직설적 유추보다는 하얗은 재



〈그림 13〉 우주적 오브제의 상징  
K. Murkudis, 01,02 F/W  
(Gap Collection. Vol. 35, p.90).



〈그림 14〉 우주적 에너지의 상징  
Under Cover, 01,02 F/W  
(Gap Collection. Vol. 37, p.11).

료를 통해 광택있고 매끈한 표현감으로 표현되고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소재, 색채 등을 통해 정신의 내면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뉴욕 인더스트리의 코스타스 머쿠디스(Kostas Murkudis)는 뽀베라의 작가 조리오의 작품 속에 종종 등장하던 별의 이미지를 스트링을 이용하여 재현하고 있다. 머쿠디스 역시 여러 작품에서 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별은 하찮은 재료와 영원을 의미하는 별의 형태, 즉 재료와 형태의 이질성을 강조하여 우주의 이미지를 상징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것과 지속적인 것, 무한과 유한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13). 또한 언더 커버(Under Cover)는 뽀베라 작가 메르쥬의 이글루에서 보여지던 네온을 이용하여 알루미늄과 금속성 소재의 차가운 성격과 유연성 그리고 빛남과 저칠음, 뿜어져 나오는 불의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환상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해 긴장을 유도하고 있다(그림 13). 이들 재료는 보여지는 그대로 하얗고 불품없는, 즉 뽀베라적인 상태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는 작품의 지나간 흔적을 남겨두

기 위해서 물질들의 어떤 특성들을 각각 이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코스타스 머쿠디스(K. Murkudis), 언더 커버(Under Cover), 존 갈리아노(J. Galliano), 뮤글러(T. Mugler), 장 콕토(J. Cocteau), 장뿔 고티에(J. P. Gaultier)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의 표현은 대량소비 사회인 상업문화 속에서 무한한 소재의 원천을 찾아내고, 기존 패션에 도전하는 이색적인 미에 대한 도전으로써, 그것의 가치는 인간의 소의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현대 복식에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개방함으로써 재료의 현대적 성격을 강조한 측면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 2. 아르테 포베라 이미지의 표현적 방법을 통한 조형성

이상에서 살펴본 아르테 포베라의 기법에 의한 현대패션의 특징을 이미지의 표현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빈곤성, 반형태성, 자연성, 상징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조형적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아르테 포베라 이미지의 표현적 방법을 통한 조형성

구분	빈곤성	반형태성	자연성	상징성
표현 형태	내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체와 무관한 순수, 우연의 미 추구</li> <li>합리성 개념 무시</li> <li>착각의 논리 부정</li> <li>미·추 개념 해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과의 융합</li> <li>유토피아적 경향</li> <li>비문명 세계에 대한 동경-현대 문명에의 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식오소의 상호 텍스트성</li> <li>소재 영역의 해체</li> <li>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li> </ul>
	외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수단이나 표현 효과의 극소화</li> <li>중고스타일, 패치워크</li> <li>의도적 미스매치</li> <li>손바느질 투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식, anti-form</li> <li>인체의 왜곡을 통한 비정형적 형태</li> <li>배열과 착각의 오류를 통한 변용과 전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소재의 적용</li> <li>원시주의 표현</li> <li>신체노출,</li> <li>아폴리케, 수공예 기법</li> </ul>
색채	바랜색, 탈색 및 염색, 저명도, 저채도의 무채색	형태나 색채, 재료를 거부하며 자연소재, 자연색	저명도, 저채도의 토속적 색상, New Earth Color	메탈소재의 금색, 인위적 색채의 거부, 원색, 검정색
소재·문양	인위적으로 과열시킨 면직물, 들떠진듯한 낡은 소재, 흘치기 염색 직물	편물, 천연직물 크링클 코튼	가죽, 바다패인팅, 델라베 코드로이, 진 등 천연소재, Sec-through 소재	자연소재, 금속성 소재, 미래적 소재
스타일	Grunge look, Poor look, Hobo look, 빈티지 룩, 패치워크 look, Layered look,	Structureless look, 상쿠튀르(재봉을 하지 않은) Style, Shapeless look, 샹포름(형이없는)Style	에콜로저풍, 전원풍 Eco look, Tatoo look, 아프로 모히칸 스타일	신비주의 스타일, 장식적 스타일
디자이너	J. Galliano, Issey Miyake, K. Tatsuno, R. Kawakubo, S, Kuwahara J. Richmond	Issey Miyake, Kimijima, Kosuke Tsumura, J. Galliano, Yoshiki Hishinuma	Y.S. Laurent, Fendi, Kenzo, Complice, Liz Collins, Tokubol Vol	J. Galliano, T. Mugler, Under Cover K. Murkudis J. P. Gaultier,

IV. 결 론

본 연구는 1960년대 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운동인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의 특성을 분석하고 아르테 포베라가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성을 고찰하여 미래복식의 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르테 포베라는 누보리얼리즘이나 팝아트가 사용하였던 획일적인 제품이나 페폼과는 다른 빈곤하고 보잘 것 없는 재료, 특히 자연대상을 주로 사용하여 산업사회와 예술상품화에 대한 반발로서 빈곤함, 보잘 것 없음을 절대적 가치로서 표현하고 작품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형성의 기준을 거부하고 사회, 정치, 경제 등 그 당시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현실문제를 다루는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한 운동이었다.

아르테 포베라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분석된 현대 패션의 표현성은 1) 빈곤하고 하찮은 재료 자체의 물성 강조, 2) 무 형식적 반 형태(anti-form), 3) 자연성의 추구, 4) 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르테 포베라의 기법에 의한 현대패션의 특징을 이미지의 표현적 방법으로 분류하면 빈곤성, 반 형태성, 자연성, 상징성으로 표현된다.

첫째, 빈곤성은 패치워크, 손바느질의 투박성, 의도적 미스매치, 표현수단이나 표현효과 극소화, 중고 스타일 등을 통한 소재의 빈곤성과 형태의 빈곤성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빈곤, 소외감의 직접적 표현, 소비사회에 대한 반발,

부와 빈에 대한 이중적 코드양식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반 형태성은 인체의 왜곡을 통한 비정형적 실루엣과 배열과 착장의 오류를 통한 변용과 전위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성의 거부, 합리성 개념의 무시, 착장의 논리 부정, 미·추 개념의 해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셋째, 자연성은 아플리케, 수·공예기법, 신체 노출 등을 통해 자연소재의 적용과 원시적 표현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자연과의 융합, 유토피아적 추구, 현대 문명에의 회의에서 오는 비문명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넷째, 상징성은 기성 오브제의 도입, 다양한 재료의 도입, 소재 사용의 왜곡, 복식과 타 영역간의 경계 해체 등을 통해 인간의 소외현상이나 시대상황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영역의 해체, 복식요소 간의 상호 텍스트성, 소재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 관념의 탈피, 복합성, 애매성, 불규칙성, 열린 개념으로써의 공간구성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그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과 사건을 직면하게 하여 예술의 사회화를 이루고자 한 아르테 포베라의 예술정신은 패션의 표현영역에 정신적 세계를 담아냄으로써 정신적 표현과 일상적 삶의 구분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패션의 흐름과 그 맥을 함께 한다 하겠다.

### 참고문헌

김미경 (1991). 아르테포베라의 개념과 조형적 특징

현대미술논집, 제1집.

박래경 (1988. 5). 이태리 전위미술의 제 양상, 공간. 스미드, R. (1994)., *현대미술의 흐름*, 김춘일(역). 서울: 문예출판사.

스텐고스, N. (1994). *현대미술의 개념*, 성완경, 김안래(역), 서울: 문예출판사.

안기매 (1987). *미니멀리즘으로 향한 움직임*, 현대미술의 동향, 정병관 외, 서울: 미진사.

엄소희·김문숙 (2000). *현대패션의 패러다임*, 서울: 경춘사.

이일 (1982). '이탈리아의 同一性展, 공간, (1982년 1월).

최혜원 (1996)., *Arte Povera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riganti, G. (1989), *Cultural Provocation : Italian Art of the Early Sixties. In Italian Art in the 20th Century*, ed. by E. Braun Munich : Prestel.

Celant, Germano (1976). Jannis Kounellis, *Studio International*, No. 971.

Celant, *ARTE POVERA* (1985). Milano : Umberto Allemandi & C.

Celant (1989). *Mario Merz*, New York: Rizzoli.

Celant (1989). *Giuseppe Penone*, Milano : Electa.

Daval (1986). J.-M.( [n.d.] ). *Sculpture, The Affirmation of Sculpture, Arte Povera*, trans., by Michael Heron, New York: Rizzoli.

Hammacher (1989). A. M., *Modern sculpture*, Harry & Abrams.

Semin, D. (1992). *L'arte povera* Paris:Centre Georges Pompidou.